

인권정보자료실

SAC1.5

## 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U.S Military Bases

# 미군기지의 그늘, 그 너머 희망

일시 : 2005년 9월 9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주최 :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녹색연합

2005

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SAC1.5

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미군기지의 그늘,  
그 너머 희망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녹색연합

## 글심는 순서

---

-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며 · 4
- 전체 행사안내 · 7
- 국제심포지엄 순서 · 9
- 하와이의 미군 상황 · 10  
테리 케콜라니  
(DMZ-하와이 / 아로하 아이나와 AFSC 하와이)
- 오키나와 헤노코 신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주민들의 투쟁 · 26  
아시토미 히로시  
(해상헬기기지건설반대 나고시정 평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협의회 공동대표)
- 한반도의 자주 평화를 향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 44  
유영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 글심는 순서

---

- 필리핀 미군기지과 환경문제 · 56  
밀라 발도나도  
(미군기지정화위원회 사무총장 Alliance Bases Clean Up, President)
- 독일 미군기지 전환 과정과 정책제안 · 70  
실케 스투진스키  
(군사법전문위원회, 변호사 Military Law Task Force Member, lawyer)
- 한국의 미군기지 환경, 문제점과 해결방안 · 86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 주최단체 소개 · 97

\* 본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에 의해 개최되며, 본 사업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너무나도 많은 그들과 우리,  
미군기지의 그들과  
그 너머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갑시다(Katchi Kapshida!)”

“우리는 대한민국에 머무르면서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2005년 주한미군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이웃’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주한미군은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트럭 압사사건에 대해 법무부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거부하는 통보를 전해왔다. 그런가하면 의정부 미군 맥주병 집단 폭행사건, 평택 미 공군 중위 금품수수, 미군 10중 추돌사고 등 각종 범죄로 신문지면에 오르내린다.

잇달아 밝혀진 매향리 중금속 오염과 35년째 민통선 내 방치된 미군 건축폐기물, 또한 최근 천연기념물 431호 신두리 사구가 미군훈련에 의해 크게 훼손된 사고를 접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암담하다. 2005년 9월 1일은 평택에서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며 시작한 촛불집회가 꼬박 1년째 되는 날이다.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한국의 주한미군문제가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미군기지가 있는 국가에서는 각종 인권문제와 환경문제가 늘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은 미군기지의 그늘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전 세계 미군전략 재편에 따라 각 국에서는 미군기지 ‘확장’과 ‘반환’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이에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녹색연합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미군기지의 그늘, 그 너머 희망’이라는 주제로 미군기지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2005년 9월 8일은 이 땅에 주한미군이 진주한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5개국 미군기지 활동가들은 미군기지의 온갖 그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싸워가는 사람들과 그 희망을 일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참가자들은 8일(목) 각각 평택과 춘천에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9일(금) 국제심포지엄, 10일(토) 각 나라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제를 가질 예정이다.

대표적인 기지 확장에 맞서는 사례로 한국의 평택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오키나와와 하와이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지금 오키나와에서는 해노코해상기지 건설을 막기위해 해상에 망루를 세우고 고무보트를 탄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막아내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1997년 「해상헬기기지건설반대 협의회」 결성,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아시토미 히로시 씨와 3명의 지역주민이 참가한다. 지상 낙원으로 알려진 하와이, 미군은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이커 여단 훈련을 위해 3천 만 평에 달하는 훈련장을 조성하고 있다.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나선 선주민들인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Noho Hewa)’의 테리 케쿨라니(Terri Kekoolani) 씨와 하와이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주도하는 카일 카지히로(Kyle Kajihiro) 씨가 평택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한다.

또 반환하는 미군기지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알려줄 필리핀과 독일 활동가들이 참가한다. 필리핀 클락과 수빅에서 발생한 미군기지 환경재앙의 피해자들과 20여 년간 활동해온 미군기지정화위원회사무총장 밀라 발도나도(MYRLA BALDONADO) 씨와 단체 실무자 제이드(Jade) 씨가 참석한다. 녹색아시아를 위한 필리핀 만원계에서 그동안 모금한 돈을 제이드 씨의 한국 방문 비용으로 후원하기로 했다. 또한 독일의 미군기지 전환과 활용 사례가 한국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토론하기 위해 독일 군사법 전문위원회 소속 법률가, 실케 스투진스키(Silke Studzinsky) 씨가 방문한다.

##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며

헤노코 앞바다에 해상망루를 세우고 고무보트로 해상기지 건설을 막는 오키나와 사람들,

낙원의 섬, 하와이에 몰려오는 400여대 스트라이크 부대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하와이 선주민들,

세대를 이어 물림 되는 죽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필리핀 수빅, 클락의 주민들,

1년을 꼬박 촛불로 밤을 밝혀온 평택 대추리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나도 닮은 그들과 우리,

미군기지의 그들과.

그 너머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녹색연합

## 전체 행사안내

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미군기지의 그늘, 그 너머 희망

9월 8일(목) ▶ 9월 10일(토)

□ 주최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녹색연합,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 참가지역 : 하와이, 오키나와, 한국, 독일, 필리핀

#### 첫째 날

#### 아픔과 희망의 연대

#### - 미군기지 지역 주민과 해외 활동가 간담회

#### ■ 미군기지 반환, 그 이후를 준비하자 - 독일, 필리핀, 춘천

1 일시 1 9월 8일 (목) 오후 6시 1 장소 1 춘천시 근화동 주민센터

#### ■ 미군기지 확장에 맞선 사람들 - 하와이, 오키나와, 평택

1 일시 1 9월 8일 (목) 오후 4시 1 장소 1 평택시 비전2동사무소 2층

## 전체 행사안내

### 둘째 날

#### 미군기지 환경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1 일시 19월 9일 (금) 오전 10시 - 1시 1 장소 1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 ■ 1부 미군기지 확장, 무엇이 문제인가?

- 하와이, 오키나와, 한국 발표

##### ■ 2부 기지 반환 이후 환경정화와 활용방안

- 필리핀, 독일, 한국 발표

### 셋째 날

#### 다큐멘터리로 본 미군기지

1 일시 19월 10일 (토) 오후 5시

1 장소 1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강의실

- 상영작품
- 필리핀 : Toxic Sunset
  - 비에케스 : Paradise Lost ?
  - 하와이 : 'A'ole Pono: The US military in Hawai'i
  - 오키나와 : 헤노코, 뜨거운 마음을 이어
  - 평택 : 미군기지확장 예정지, 평택이 위험하다
- \* 영화상영 후 해외참가자들과 간담회

## 국제심포지엄 순서

사회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실장)

#### 1부 미군기지 확장, 무엇이 문제인가? 10:00~11:10

- 하와이 - 테리 켈쿨라니 (Noho Hewa)
  - 오키나와 - 아시토미 히로시 (해상헬기기지건설반대-나고시정 평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협의회 공동대표)
  - 한국 - 유영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 질의응답

#### 2부 기지 반환 이후 환경정화와 활용방안 11:20~12:30

- 필리핀 : 밀라 발도나도 (미군기지정화위원회사무총장 Alliance Bases Clean Up, President)
  - 독일 : 실케 스투진스키 (군사법전문위원회, 변호사 Military Law Task Force Member, lawyer)
  - 한국 :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 질의응답

#### 3부 종합토론 12:30~1:00

## 하와이의 미군 상황

DMZ-하와이 / 아로하 아이나와 AFSC 하와이  
2005. 8. 24<sup>1)</sup>

### 1. 하와이의 미군 군사화의 뿌리: 침략과 점령

19세기에 하와이는 모든 태평양 횡단 무역의 연료와 식량 재충전을 위한 필수적인 곳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막 눈을 뜨기 시작한 미국 제국주의자들에게 매우 탐나는 곳이었다. 당시 하와이의 선주민들인 카나카 마오리(Kanaka Maoli)는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았고 또한 이들과 조약을 맺은 입헌군주국가를 수립한 상태였다.

1873년에 미군 간첩들은 진주만으로 알려진 와이모미(Waimomi)를 '중앙 태평양으로의 열쇠(key to the central Pacific Ocean)'로 꼽았다. 1886년에 하오레(Haole, 백인계열 외국인 엘리트) 사업가 대표들과 선교사들의 후손들이 카라카우아(Kalakaaua)왕에게 압력을 가해 하와이산 설탕에 대한 관세를 깎는 대신 미국에게 진주만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해 주는 새로운 호혜조약에 서명하도록 했다. 하와이 국민들이 진주만의 양도에 대해 항의하자 하와이 내의 하오레 엘리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강제로 '바요네트 헌법

1) 번역 : 양성진

(Bayonet Constitution)'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군주제를 국가 원수로 약화시켰고 비(非)백인 인구 대부분의 권리를 빼앗았다.

카라카우아의 후계자, 리릴우오카라니(Lili'uokalani) 여왕이 하와이의 전 헌법을 회복시키려하자 하오레 쿠데타 지도자들은 여왕을 내쫓기 위해서 1893년 1월 17일에 미군을 상륙시키고자 미국의 스티븐스(Stevens)장관과 공모하기도 하였다.

미국으로의 합병을 위한 두 차례의 조약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하와이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스페인-미국간 전쟁의 발발은 하와이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규모 점령을 유발시켰다. 1898년 7월 6일에 의회는 하와이를 합병시키는 간단한 공동결의를 통과시켜 하룻밤 사이에 하와이는 거대한 미군의 태평양 축으로 아시아를 향한 제국주의적 발판이 되었다.

1900년, 진주만에는 해군기지가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36개의 전통적 양어지를 파괴시켜 오아후(O'ahu)의 풍부한 식량원이었던 곳을 거대한 해군기지로 둔갑시켰다. 여기에 이어 셰프터 주둔지(Fort Shafter), 루거 주둔지(Fort Ruger), 암스트롱 주둔지(Fort Armstrong), 데루씨 주둔지(Fort DeRussy), 카메하메하 주둔지(Fort Kamehameha), 웨버 주둔지(Fort Weaver)와 쇼필드 병영(Schofield Barracks)가 세워졌다. 매콤 장군(General Macomb)은 "오아후는 철로 둘러싸여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1898년에서 1941년까지 하와이에서는 하오레 과두정치에 의해 정부와 경제, 그리고 하와이에 살고 있는 비백인 카나카 마오리의 대다수와 아시아계 정착민들을 지배하는데 필요한 병력을 제공하는 군사적 점령이 통제되었다.

### 2. 2차 세계대전과 냉전

1941년 12월 7일에 발생한 하와이에 있던 미 군사시설들에 대한 일본의 기습공격은 미군이 하와이에 계엄령을 내리기 위해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정당성과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일본과 연결되었다고 의심받은 일본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체포되어 구치소에 있다가 미국의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많은 땅들이 몰수되어 1944년 군용지가 7억3천4백만평 (600,000에이커)까지 팽창했다.

종전 후 냉전시대로의 변화는 하와이를 미국 대륙에 대한 방어기지에서 태평양 너머 미국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축으로 변화시켰다.

미국의 가장 오래된 통합사령부인 태평양지구사령부(PACOM)는 1947년 1월 1일에 하와이에 설치되었다. PACOM하에 있는 지역은 지구의 50% 이상으로 43개국, 20개의 속령과 보호령, 10여개의 미국 속령들과 세계의 6대 군대와 미국이 맺고 있는 7개의 상호방위조약 중 5개가 속해있다. PACOM하에는 300,000명의 군사가 있으며(미군의 현역군중 1/5) 서태평양의 전진 배치된 100,000명의 군사도 포함되어 있다. 카나카 마오리 운동가인 카레이코아 카에오(Kaleikoa Kaeo)의 말에 의하면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히(he'e - 문어) 괴물이다. 머리는 PACOM, 눈은 산 위에 있는 망원경들과 레이더 시설들, 뇌와 신경계는 슈퍼컴퓨터들과 섬을 종횡하는 광케이블로 상징되고 있다. 히의 촉수들은 북미의 서쪽해안에서부터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 알래스카에서 남극까지 이른다.

### 3. 오늘날 하와이 내의 미군

하와이는 심하게 군사화 되어있다.

- 미 국방부에 의하면 2004년 당시 하와이에는 총 161개의 군사기지가 있다(4개의 대규모 군사기지, 4개의 중간규모 군사기지, 153개의 소규모 군사기지).

- 하와이의 땅 중 군대가 2억9천만평(236,303에이커), 총 면적의 5.7%를 관할하고 있다.

-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섬인 오아후의 경우, 군대가 4억6천8백만평(382,148에이커)의 땅 중 1억4백만평(85,718에이커), 22.4%의 땅을 관할하고 있다.

- 또한 군대가 상당한 규모의 바다와 진주만에서 코코헤드(Koko Head)에 이르는 케인오헤(Kane'ohe)만과 카우아이(Kaua'i)의 서쪽 해안가의 방어 해상 지역(Defensive Sea Areas)도 관할한다. 전 하와이군도는 1억6천4백만평(54,388,733.8헥타)의 해양 군사 작전지역과 4천6백만평(15,176,787.7헥타)의 군사 작전공역으로 둘러싸여있다.

- 하와이 주정부에 의하면 2003년 하와이에는 44,458명의 현역군인과 56,572명의 부양가족들이 살았고 이들의 총합은 하와이 총인구의 8%에 해당된다. 하와이에 살고 있는

116,000명의 퇴역군인들까지 포함하면 군 관련 인구는 총 217,030명으로서 하와이 총 인구의 17%에 해당한다. 2000년 미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하와이가 미국에서 군대 관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주요 문제들

#### 1) 토지수용

하와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주요 문제는 군사적 목적의 토지수용이다. 1898년에 미국은 전 정부와 하와이 왕국의 왕실 소유지 중 거의 22억3백만평(1,800,000에이커)의 땅을 몰수했다. 이들 이른바 “양도지”(ceded lands)는 연방정부와 주에 의해 반신탁의 상태가 되었다. 1959년 미국이 하와이를 주로서 인정했을 때 군은 2억2천만평(180,000에이커) 정도의 “양도지”를 계속 존속시켰고 나머지 땅은 정부에 신탁되어졌다. 정부로 돌려진 땅 중 3천6백만평(30,000에이커)은 동시에 군에게 65년간 임대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군은 임대의 조건으로 1달러를 지불하였다. 현재 하와이의 군 점령지의 54%인 1억3천7백만평(112,173에이커)은 하와이 국가의 전 정부 땅과 왕실 소유지였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여러 개인 소유지들도 미국의 전쟁 목표를 넓히기 위해 몰수되었다.

#### 2) 하와이 선주민 문화에 대한 위협

카나카 마오리들을 그들이 대대로 살아오던 땅에서 쫓아낸 것은 그들의 생존과 문화적 자원을 잃게 한 것과 같다. 아이나(aina - 땅의 하와이어)에 대한 문화적인 분쟁은 단순한 소유권이나 토지 이용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자연환경에 대한 카나카 마오리 사회의 시각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카나카 마오리의 우주관에 의하면 아이나는 지구 어머니인 파파하나아우모쿠(Papahānaumoku - 섬들에게 생명을 주는 Papa) 여신과 하늘 아버지인 와케아(Wakea)신의 연합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아이나는 카나카 마오리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를 소유하거나 팔거나 모독할 수 없다. 카나카 마오리



와 아이나 사이의 계통적 연결들을 끊고 그들의 문화를 행하고 이를 미래 세대들에게 전수할 능력을 방해하는 군의 토지몰수는 카나카 마오리들의 문화적 생존에 지속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군에 의해 행해지는 토지의 파괴는 사람들에게 대한 폭력의 일종이다.

카나카 마오리에 대한 강제적 문화 동화는 문화적 붕괴로 이어진다. 통계자료들은 미국의 점령이 가져온 결과들을 보여준다. 카나카 마오리들이 가장 높은 비율의 노숙자, 가난, 질병과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가장 낮은 교육률과 기대수명을 기록하기도 한다. 카나카 마오리들이 중범죄로 투옥된 범죄자들의 1/3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점령이 시작 된지 1세기 동안 새로운 정착민들의 홍수는 카나카 마오리들의 자결권을 잃게 만들었는데 이는 타 국가의 점령을 받는 티벳, 동 티모르, 팔레스타인과 같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인구위기와 비슷하다. 경제, 문화, 정치적인 복합적 압박은 카나카 마오리들의 1/3정도를 디아스포라로 몰아넣었다.

군은 하와이에 미국인들을 이주시킴으로서 하와이의 문화와 정치적 인구분포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1900년과 1950년 사이에 미국대륙과 속령들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인구는 총 293,379명이었다. 현재 17%를 차지하고 있는 부양가족과 퇴역군인들을 포함한 군 관련 인구는 이제 총 인구의 19%를 차지하는 카나카 마오리의 숫자인 239,655명과 거의 같아졌다.

### 3) 환경오염

하와이 내의 가장 큰 산업 오염자는 거의 확실하게 미군이다. 2004년 국방환경재구축 프로그램(Defense Environmental Restoration Program)의 미 의회 보고서에는 108개의 군사시설내에 798개 군 오염지역을 공시하고 있고 이중 96개 지역은 불발탄들로 오염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7개 군 오염지역들은 "슈퍼펀드"(Superfund - 공해방지사업을 위한 대형 자금)를 위한 지역으로 고려되어졌다. 해군에 의하면 진주만 해군단지 안에 대략 749개의 오염지역이 있다. 이 숫자들은 실제보다 낮는데 그 이유는 정화책임이 있지 않은 오염지역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납, 다이옥신 수은, PAC를 포함하는 PBT를 유출시키는 하와이의 10대 오염원 중 5개가 군사시설들이다.

군사 오염 위협에는 불발탄, 각종 유류, 필클로로에셀린과 트리클로로에셀린을 포함한

유기용매와 같은 석유제품들, 다이옥신과 PCB, RDX, TNT, HMS, 페르클로레이트와 같은 폭발물과 화약, 납과 수은 같은 중금속들, 네이팜, 화학무기와 원자력 군함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이 있다. 원자력 군함에서 나오는 코발트 60이라는 방사성 폐기물이 진주만의 침전물에서 발견되었다. 1964년과 1978년 사이에 1천8백만 리터(4,842,000갤런)의 낮은 방사성 폐기물이 진주만으로 유출되었다. 하와이로부터 55마일 떨어져 있는 해상 처리 장소에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2,189개의 드럼통이 버려졌다.

군사 오염 지역들은 카나카 마오리들과 아시아 및 태평양 이주자들 및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에 집중되어있고 그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이는 '환경 인종차별'이라고 불린다. 많은 아시아계 사람들과 태평양의 섬사람들은 오염된 진주만에서 나오는 생선과 조개류를 주식으로 삼고 있다. 와이아나이(Wai'anae)지역은 1/3이 군사시설로 점령되어 있고 카나카 마오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으며 하와이에서 가장 낮은 보건, 경제 사회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라우라우라이(Laulaulei) 계곡에 있는 강한 라디오 송신기가 근처 하와이 거주지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백혈병의 원인으로 의심되어졌다.

### 4) 토속생태계와 위기생물들의 파괴

하와이는 세계 위기생물들의 수도로 간주되어진다. 지리적인 고립으로 인해 독특한 생물들과 생태계가 하와이에 발전했다. 1,100여종의 토속생물들이 있으며 이중 82%는 하와이에서만 발견된다. 비숍 박물관(Bishop Museum)의 위기생물목록에는 2종의 포유류, 32종의 새, 5종의 파충류, 1속의 달팽이들과 289종의 식물들을 포함한다. 이에 더해 박물관에서는 24종의 새들과, 72종의 달팽이들과, 74종의 곤충들과 97종의 식물들이 멸종되었다고 기록했다.

군사훈련은 화재, 부식, 서식지의 변형과 비토속종 생물의 유입을 유발함으로써 토속 생태계를 위협한다. 예를 들어 마쿠아(Makua) 계곡은 40종의 위기생물들의 서식지이면서 군사 사격장이다. 지난 10년간에 발생한 270건의 군에 의한 화재는 가장 높은 능선들을 제외한 숲을 파괴했다.

## 5) 폭력과 범죄

아직까지는 아무도 하와이에서 발생하는 군 관련 범죄 및 폭력에 대한 믿을만한 통계를 집계하지는 않았다. 이는 정치적, 법인, 그리고 군사적 시설들이 군을 나쁘게 비추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사실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다. 다음의 사례들처럼 군인들이 관련된 비극적인 폭력사건들이 많이 존재한다.

- 올해 한 육군 부사관이 10대의 의붓딸을 때려서 사망하게 한 죄로 고소됨
- 2002년 6월, 진주만의 한 수병이 금지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부인을 처참하게 프라이팬으로 때려서 죽이고 장모를 찢어 죽였다.
- 1997년에 쇼필드 병영에서 한 병사는 트랜스젠더 매춘부를 살인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 6) 성매매

다른 군부대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하와이의 성매매는 군의 주둔으로 인해 부추겨진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은 지정된 흥동가 지역에 성매매를 규정시켰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성매매는 불법적으로 분산화 되었다. 스트립 클럽, 안마 시술소, 에스코트 서비스, 호스트바, 길거리 성매매의 급격한 증가는 군인과 관광객, 지역 손님들을 상대로 이루어진다. 어느 전직 매춘여성은 도심지에서 매춘여성을 찾는 사람들의 최소 60%가 군인들이며 쇼필드 병영 가까이에 있는 와히아와(Wahiawa)에서는 70~80%까지 이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 군인이 어떻게 자신의 목을 졸랐고 자신이 그를 때리고 도망갔는지를 회상하며 말했다. 매춘여성들이 상업적 성매매 착취(CSE)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한 기관에 의하면 거대한 관광업과 군대의 주둔으로 인해 특히 하와이가 CSE와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 7) 청소년의 군사화

군사 징병관들은 저소득 유색인종사회를 목표로 잡았다. 하와이 선주민, 필리핀인, 태

평양 섬 주민들은 징병관들이 제시하는 경제적인 유혹에 취약하다.

군사 징병관들은 군사 징병관 접근 법령과 낙제학생방지법령(No Child Left Behind)의 학생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서 전례 없는 학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고 있다. 또한 최근에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 수집 회사들을 고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와이에서는 예비역 장교 훈련단(ROTC)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의 징병, 대중문화 속에 등장하는 군대 이미지의 증가와 과감한 징병 등을 전략적으로 사용해 해 지역 주민의 동화 및 미국화를 가속시켰다.

## 8) 경제적 의존도

2001년 9월 11일 이래로 하와이 내에서 미군의 소비가 증가했다. 2003년에는 군 지출이 관광산업 다음으로 하와이내 큰 두 번째 '산업'으로서 4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2년에 비해 1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 하와이는 1인당 방위비가 \$2,566을 기록하면서 미국에서 국방부인 펜타곤이 위치한 버지니아 주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미연방정부의 하와이에 대한 지출은 건설과 같은 산업을 촉진시켰는데 이는 문화유적과 자연자원들의 보존에 유해한 것이다. 군의 팽창은 또한 집값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군인들을 위한 주택 수당은 시장가치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인 집값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와이의 군인들은 주정부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의 비용은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된다. 이는 주에서 나오는 기금에 의지하는 공립학교에 문제를 안겨준다. 연방 충격 보상(Federal Impact Aid)이 군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비용을 감당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지원되는 돈은 실제 군 자녀들의 교육에 드는 비용의 1/10밖에 안 된다.

## 5. 하와이에서 발생한 미군의 학대에 대한 저항

### 1) 카호올라위(Kaho'olawe)

카호올라위는 약 3천5백만평(28,800에이커)의 면적으로 하와이 군도 8개 섬 중 가장 작다. 이 섬은 카나카 마오리에게는 바다의 신 카나로아(Kanaloa)가 있어 신성한 곳이다. 카호올라위는 폴리네시아 항해의 기준점이었고 하와이의 정착지였다. 하와이의 가장 풍요로운 문화유적 중 몇 곳이 카호올라위에 있다. 하와이 왕국의 땅이었던 이 섬 전체를 미 해군이 1941년 12월 8일 사격연습을 위해 몰수하였다. 1976년 Protect Kaho'olawe 'Ohana가 처음으로 몇 차례 카호올라위에 상륙해서 폭격에 대해 시위했다. 수년간의 직접적인 행동들과 시위, 소송들을 통해 1990년에 폭격을 중단했다. 불발탄 제거와 문화유적 및 토속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4억달러가 통과되었지만 해군은 자신들이 명시한 목표를 다 채우지 못했다. 현재는 섬의 1/10만이 사람이 사용하기에 안전하다.

## 2) 마쿠아(Makua)계곡

마쿠아 계곡은 오아후의 서쪽에 있다. '마쿠아'는 '부모'를 뜻한다. 이곳은 파파와 와케아가 지구상에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 내려온 곳 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다. 마쿠아는 1929년부터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었다. 1942년 마쿠아의 남아있던 거주민들은 군에 의해 강제로 추방되었다. 그들의 집들과 교회는 표적물로 사용되었다. 모든 종류의 탄이 마쿠아에서 사용되었고 버려졌다. 그 결과 이 계곡은 불발탄으로 가득하다. 풍부한 문화유적들과 숲은 파괴되거나 심하게 훼손되었다. 1970년대부터 카나카 마오리들은 마쿠아 계곡의 정화 및 반환을 위해 싸워왔다. 이 저항은 육군이 계속 마쿠아에서의 훈련을 늘려가려는 가운데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3) 할라와(Hallawa) Valley / H-3 고속도로

H-3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1963년에 카네오헤(Kane'ohe)의 해병대와 진주만을 이어주는 방어용 고속도로로 계획되었다. 운동가들이 문화 및 역사 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해서 고속도로가 모아나루아(Moanalua)계곡을 지나가는 것을 막았지만 대신 할라와(Halawa)계곡을 지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초기 새로운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저지에도 불구하고 운동가들은 다니엘 이노우예(Daniel Inouye) 상원의원이 H-3 프로젝트가 환경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서 힘을 잃었다. 카나카 마오리 여성들이 이끈 할라와 연합은 고속도로의 길목에 있는 할레오파파(Hale-o-Papa)라는 여성들의 신전을 점거해서 1992년 4월부터 투쟁했지만 8월에 체포되었다. 할레오파파는 구했지만 다른 성지들은 파괴되었다. 저항이 37년째 되던 해에 H-3은 13억달러(마일당 8천만달러)의 비용으로 지어진 가장 비싼 도로가 되었다.

## 4) 노힐리(Nohili) / 태평양 미사일 사격장 시설(Pacific Missile Range Facility)

1990년대 초반에 토속 하와이인들과 환경단체들이 태평양 미사일 사격장 시설에서 육군 전술 표적 시스템(Army Strategic Target System - STARS) 미사일의 발사를 막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노힐리의 모래언덕에 위치한 카나카 마오리의 매장 지역들과 위기의 생물들, 미사일로 인한 오염 및 사고였다. 35명의 시위자들이 처음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중에 시민적 저항으로 체포되었다. STARS 프로그램은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1996년 예산이 정지되었지만 PMFR의 능력이 늘어나고 후에 조지 부시(George W. Bush)에 의해 가속화된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으로 인해 새로운 위협들이 등장하고 있다. 9.11 이후 경계의 수위가 높아져서 노힐리 해안가에 어떠한 이유로도 들어갈 수 없게 하였는데 이는 행동주의자들을 새롭게 부추겼다.

## 5) 와이카네(Waikane) 계곡

오아후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는 와이카네는 전승과 성소들과 전통적 농업생산에 있어 풍요롭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인접해있는 와이아홀레(Wai'ahole)와 와이카네 땅 2백만평(1,601에이커)을 이동사격훈련용으로 1976년까지 임대하였다. 가장 타격을 많은 카마카(Kamaka)가족은 해병에게 자신들의 땅 22만평(187에이커)을 오염시킨 불발탄들을 임대계약조건대로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오히려 해병대는 카마카 가족들의 요청을 비난하였다. 2003년에 해병대는 남 필리핀 테러에 대비한 훈련의 일환으로서 와이카네에서 정글전투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지역사회에서 거센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2003년 3월 공청회에서 지역사회는 해병대가 정화한 후 카마카 가족에게 와이

카네의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발전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필리핀 운동가들의 결속이었다. 이들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간섭 및 와이카네에서의 훈련에 저항했다. 해병대는 결국 안전적인 문제를 들어가며 와이카네에서의 훈련을 취소했지만 불발탄들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 6) 포하쿨로아(Pohakuloa)

하와이 섬에 있는 포하쿨로아는 용암지대의 넓은 들판과 마우나 케아(Mauna Kea), 마우나 로아(Mauna Loa)와 후아라라이(Hualalai)산 사이에 있는 숲이다. 군은 1956년에 포하쿨로아 훈련장(PTA, Pohakuloa Training Area)을 세웠다. 1억4천만평(116,341에이커) 규모의 포하쿨로아 토지 중 1억3백만평(84,815에이커)은 왕실 영토이다. PTA는 하와이에서 가장 큰 미군 훈련장이고 미국 본토 밖에서도 가장 크다. 이 PTA 훈련장에서는 각종 사격훈련이 이루어지는데 이곳에는 수 천 개의 문화유적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1종의 위기 식물과 동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훈련지역을 2천8백만평 더 늘리겠다는 육군의 제안은 포하쿨로아를 다시 한 번 저항의 중심으로 불러들였다.

### 6. 군사적 팽창 위협

#### 1) 스트라이커 여단(Stryker Brigade)

육군은 스트라이커여단(SBCT, Stryker Brigade Combat Team)을 하와이에 주둔시키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291여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800여명의 군사 및 그들의 부양가족과 훈련 및 유지를 위한 건물 및 주거지역을 향상시키기 위한 28개의 건설 프로젝트도 함께 가져오게 된다. 한 기사는 이를 “2차 세계대전 이래 하와이에서의 가장 큰 군사 건설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스트라이커는 20톤짜리 경량 장갑차들로서 신속한 투입과 시가전을 위해 설계되었다. 이들은 여단의 운송을 위한 새로운 C-17 수송대대와 신형 쾌속 공격함과 함께 주둔하게

된다.

육군은 3천만평(25,000에이커)의 땅을 추가로 몰수하려고 한다. 스트라이커의 총격은 오아후의 북쪽 해안가 전부와 하와이 본섬에까지 미칠 것이다. 스트라이커의 지나간 흔적은 마누아 케아의 서쪽에 있는 카와이해(Kawaihae)항으로부터 포하쿨로아 훈련장까지 이어질 것이다. 실탄훈련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유해 화학물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탄약은 25%나 증가하게 된다. 군대는 문화유적지는 파괴될 것이고, 위험은 커지고, 토양은 침식되며,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는 보고가 기록되었다.

#### 2) 해군대학 산하 연구 센터(Navy University Affiliated Research Center - UARC)

하와이 대학(UH)은 해군대학 산하 연구 센터(UARC)를 세우고 싶어 한다. 계획된 해군의 UARC는 해군의 무기관련 연구와 “스타워즈”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각종 개발 및 실험과 다른 군사적 연구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게 된다. 이는 천체과학과 천체물리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우나 케아와 하레아카라 및 미사일 발사와 해저 무기 및 소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히리 모래언덕과 주변 바다에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다.

학생들과 분과대학, 지역사회의 연합으로 UARC에 대항해서 데모를 수차례 시행했고 이는 하와이 대학 총장실을 1주일간 점거함으로써 그 정점에 이르렀다. UARC에 대한 저항은 계속된다. 이들 투쟁이 UARC를 중심에서 지지했던 하와이 대학 마노아 리전트 앵글레르트(Manoa Regent Englert)를 해고하는데 기여했을지도 모른다.

#### 3) “스타워즈”(Star Wars) 미사일 방어

하와이는 여러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는데 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AMD(Aegis Missile Defense), THAAD(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프로그램들이 있다. 미 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악마화하여 하와이에 위협이 된다고 하며 이를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들을 늘려나가는데 필요한 정당성으로 이용하고 있다.

“스타워즈”의 시설은 섬들을 모두 엮고 있다. 노히리에 있는 태평양 미사일 발사 시설(Pacific Missile Range Facility), 코케에(Koke'e), 마카하 능선과 카에나에 있는 레이더 추적 기지, 하레아카라 산에 있는 공군 광 추적 기지와 키헤이(Kihei) 마우이에 있는 슈퍼 컴퓨터. 하레아카라에서는 레이저가 실험된다. 카우아이에서 마살 군도에 있는 쿠아자레인(Kwajalein), 코디악(Kodiak), 알라스카(Alaska) 또는 해군 함정들로 표적 미사일들이 발사된다.

#### 4) 항공모함전투단(Aircraft Carrier Strike Group)

하와이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은 하와이나 괌에 항공모함의 모항을 두겠다는 제안이다. 하나의 항공모함전투단은 원자력 항공모함, 크루저, 구축함 2척, 공격 잠수함, 쾌속 전투지원함과 74대의 전투기를 포함한다. 이 외에 항공모함에 속한 3000명의 장교와 선원들과 비행단에 속한 2600명이 추가된다. 전체적으로 항공모함전투단은 20,000명의 군인과 부양가족들을 끌고 오게 된다.

진주만은 항공모함의 모항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아서 거대한 규모의 증설이 요구된다. 이는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정치가들은 문 닫은 바버스 포인트(Barber's Point) 해군 비행기지를 항공모함의 전투기들을 위해서 다시 군용으로 돌려 줄 것을 제안했다. 최종 결정은 4년마다 있는 국방 검토(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이루어지는데 2005년 안에 결정될 것이다.

### 7.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현재의 저항

#### - DMZ-하와이/아로아 아이나(Aloha 'Aina)

DMZ-하와이/아로아 아이나는 하와이를 비무장화 시키고 하와이에 거대한 군대의 주둔이 가져다주는 악영향들을 알리는 기관들과 개인들의 네트워크다. DMZ-하와이/아로아 아이나는 2000년에 AFSC의 주최로 열린 '다시 생각해보는 군사주의 컨퍼런스

(Rethinking Militarism Conference)'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군사적 영향들에 대해 대항해은 하와이의 운동가들과 각종 단체들이 모이게 되었고 또한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에서 저항하는 사람들과 운동가들을 만나게 되었다. 2002년에 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의 핵심 운동가들이 모여서 하와이에 대한 군사팽창의 위협에 대해서 의논하였고 DMZ-하와이/아로아 아이나를 결성하였다. 'DMZ'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이 네트워크의 목적과 가장 부합되는 단어였고 또한 보통의 군사적 'DMZ'의 의미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아로아 아이나'가 포함된 이유는 이것이 카나카 마오리의 '땅에 대한 사랑'을 공언해주고 하와이의 문화와 정치적인 저항을 다양한 그룹들의 모임의 중간에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DMZ-하와이/아로아 아이나의 4가지 핵심 요구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1) 하와이에서의 군사적 팽창 금지
- (2) 군사적으로 점령된 아이나(땅)에 대한 정화 및 반환
- (3) 군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를 대신할 안정적인 대안책 개발
- (4) 하와이에 주둔한 군에 의한 피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

DMZ-하와이/아로아 아이나의 핵심 활동은 스트라이커 여단을 반대하고 해군 UARC가 하와이 대학에 설립 되는 것을 막고 마쿠아 계곡의 정화 및 반환을 지지하는 것이다.

스트라이커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저항이 증가했다. 이들의 활동들은 데모, 행진, 시민적 저항, 카나카 마오리의 전통적 저항, 법적 대응 등으로 나타난다. 3개의 카나카 마오리 그룹은 국가환경정책법의 환경영향 심사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육군을 고소하였다. 연방 판사는 고소인들에 불리하게 재결하였고 현재 항소중이다.

국제적인 결속도 하나의 열쇠다. 베트남, 필리핀, 괌, 오키나와, 마살군도, 에쿠아도, 파나마, 한국, 일본과의 중요한 연결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군사주의에 대항한 동아시아-미국-푸에르토리코 여성 네트워크, 우리의 땅은 우리의 삶(Our Land is Our Life), 태평양 비핵화 및 독립 운동(Nuclear Free and Independent Pacific movement), 미군기지 반대 네트워크(No US Bases Network)와 군 독극물 프로젝트(Military Toxics Project)와 같은 단체들과도 네트워크를 형성중이다.

## 8. 결론

- 군대의 하와이 주둔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악영향과 결과들을 낳는다. 하와이의 미군사회에 대한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하와이 주둔군에 의한 부정적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하와이에서 불법적으로 점령한 땅들을 정화하고 반환해야 한다. 특히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한 지역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평화적으로 국제법에 의거해서 하와이의 주권과 중립을 침해한 미국의 잘못을 고치는 과정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 하와이의 군사적 지배는 하와이의 역사적인 주권과 하와이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우리는 NGO들과 개인들에게 여러분의 구성원들과 국가정부에게 미국이 하와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국제법과 조약들을 어기고 있는 사실을 교육하길 바란다. 이는 미래에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외교적 발의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하와이의 군사 주둔은 미국의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적 전쟁과 간섭에 많은 기여를 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술적인 경쟁과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동아시아의 미군 재배치는 하와이를 군사화하는데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할 것이다. 비무장된 하와이는 세계의 평화에 여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동맹관계인 국가의 NGO들과 개인들은 자신들의 정부에게 RIMPAC<sup>2)</sup>과 같은 하와이에서의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할 수 있다.

---

2) 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 유사시 태평양상의 중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태평양 연안국 해군간의 연합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는 다국적 해군 연합기동훈련.

# 헤노코 신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투쟁<sup>3)</sup>

아시토미 히로시(해상헬기기지건설반대-나고시정 평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협의회 공동대표)

## 1. 오키나와 미군기지 형성에 대한 역사적 배경

2차 대전에서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이 일본에 대해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게 된다. 일본 공략의 발판으로 미국은 오키나와를 선택, 1945년 3월 1,500척의 미군함대가 집결, 25일에는 일제히 포격과 폭격이 가해졌다. 1945년 4월 1일 오키나와 섬 동해안 요미탄(讀谷) 촌부터 차탄정에 걸친 지점에서 미군은 상륙하였고 한 패는 북상하고 다른 한패는 남하하는 작전을 개시하였다. 오키나와 전쟁의 시작이다. 6월 23일 마무리된 이 전쟁에서 일본 본토 출신 군인 6만5천여명과 오키나와 출신 군인 약 3만명, 그리고 약 9만4천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고 한다. 이외에 군대에서 일하는 인부와 종군위안부 등

3) 이 글은 아시토미 히로시의 발제문과 '또하나의 일본 오키나와 이야기'(1998. 아라사키 모리테루 지음 김경자 옮김 출판 역사비평사)를 토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번역 : 미야우치 아키오

한반도에서 강제 연행되어 온 1만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다고 하나 그 정확한 수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미군은 오키나와 전쟁을 통해 상륙한 후 1972년까지 미군정을 실시하게 된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은 기지를 확장, 신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총검과 불도저를 동원하여 강제로 주민들을 내쫓고 토지를 접수하였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 참가하였고 이로 인해 오키나와 평화운동가들은 오키나와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출격지 역할을 하는 데 반대하며, 그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곧 미군기지 반대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

토지를 둘러싼 오키나와 주민들의 저항은 거셌다. 나하시(那覇市) 매갈(銘苴)지구 토지투쟁, 기노완시 이사하마(宜野灣市伊佐浜)토지투쟁, 이에지마(伊江島)토지투쟁이 도화선이 되어 1966년 '섬전체의 투쟁'으로 발전하는 등 주민들의 저항은 일미 양국에 위협적이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저항은 1972년 미군정이 끝나고 일본으로 복귀될 때 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회유책으로 일본정부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전쟁 수행을 위한 미군기지로 토지를 제공하는 데 반대하는 반전지주회 등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정부와의 임대계약 체결을 거부하게 되고 지자체 장이 대리하여 임대기한을 연장하는 편법을 쓰게 되었다.

## 2. 오키나와 미군기지 재배치

오키나와는 전체 일본 면적의 1%에 불과하지만 주일미군 주둔지의 75%가 오키나와에 있어 미군에 의한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1995년 9월 4일 오키나와 북부에서 미군이 여학생을 강간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해 10월 8만5천명의 주민들이 모인 총궐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미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졌다. 이에 일미 양국은 주민들의 반감을 무마시킬 요량으로 미군기지의 반환 등을 논의하는 오키나와에서의 시설 구역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SACO)설치하여 그해 11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1996년 4월 중간보고를 통해 후텐마기지 및 세나하(瀬名)통신시설 전면반환, 캠프 구역에 반환, 현도 104호선 넘어 실탄포격연습 폐지 등을 발표하였다. 그

러나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미지위협정 재검토 및 미군기지 정리축소를 요구하는 현민 투표를 통해 투표율 60%, 찬성률 89.09%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1996년 12월 SACO 최종보고로 후텐마 기지를 대신하는 헬기 해상시설을 짓기로 하고 나고시 해노코 앞바다가 선정되었다. 이에 새로운 기지의 건설을 반대하고 후텐마 기지의 전면 반환을 요구하던 오키나와 주민들은 1997년 1월 헬기 해상시설 건설저지협의회인 '생명을 지키는 모임'이 결성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SACO 최종 합의 내용은 공동사용 해제를 포함한 토지 반환 11건, 훈련 및 운용방법의 조정 3건, 소음경감조치 실시 5건, 지위협정 운용개선 9건의 계 28건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오키나와 현민이 절망하였던 기지 정리, 축소, 반환이 아닌 기지 기능 강화, 고정화였다.

<표> SACO 최종보고 (오키나와 기지대책실, 2003. 3)

- 토지 반환 등

시설명 등	구분	시설면적 (ha)	반환면적 (ha)	연도	조건 등	실시상황
후텐마기지	전부	481	481	57년 이내	대체지로 해상시설 건설. 이와쿠니비행장에 KC130공중급유기 12기를 이주. 가데나기지에 추가적 정비 등	미
잔글전투훈련센터	일부	7,513	3,987	'02년 말	바다 출입을 위해 토지 약 83ha 및 수역 약 121ha를 제공. 헬리기 착륙대를 잔여 중 훈련장으로 이설	미
安波훈련장	전부	480	480	'97년 말	공동사용을 해제. 수역 7,895ha	종료
긴바루훈련장	전부	60	60	'97년 말	헬기 착륙대를 건조 부부 · 비치훈련장으로 이설. 다른 시설(소방훈련시설 등)을 캠프 한센으로 이설	미
소베통신소	전부	53	53	'00년 말	안테나시설 및 관련지원시설을 캠프 한센으로 이설	진행중
요미탄보조비행장	전부	191	191	'00년 말	낙하산낙하훈련을 이에지마보조비행장으로 이전. 소베통신소를 이설 후, 토지를 반환한다	바라온 이전만 종료
캠프 레스터	일부	107	99	'00년 말	해군병원 등을 캠프 포스터(端廢覽)로 이설 반환면적에는 반환 합의된 북쪽부분도 포함	미
瀬名波통신소	일부	61	61	'00년 말	안테나시설 등을 도리이 스테이션으로 이설 마이크로 웨이브탑 부분(약 0.1ha)은 계속 사용	미
캠프 긴자	일부	275	3		반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시설을 잔여 부분에 이설. 국도확장에 맞추어서 반환	미
나하군항	전부	57	57		우라소에 부두지구(약 35ha)로의 이설과 관련하여 반환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	미
주택통합		648	83	'07년 말	캠프 레스터 및 캠프 포스터에 있는 미군주택을 통합	진행중
계		9,446	5,075			
신규제공			▲73		나하군항 35ha, 북부훈련장 38ha	
합계		11시설	5,002			

- 소음 이니시아티브의 실시

사안	개요	실시상황
가데나 기지의 해군기 및 MC130수송기 운용 이전	해군기 운용 및 지원시설, MC130수송기를 주요활주로 반대쪽에 이전	미
가데나기지 차음벽 설치	가데나기지 북쪽에 새로운 차음벽 설치. 1998~1999년도에 걸쳐 총공사비 11억 엔으로 건설. 규모는 5×2,310m	종료



### 3. 미군재편과 재오키나와 미군

#### ※ 재일미군 재편안

- (1)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미 워싱턴 주) 캠프 자마(가나가와현 자마시, 사가미하라시)로 이전.
- (2) 제5공군사령부(도쿄 요코타기지) 제13공군사령부(팜)로의 통합.
- (3) 해군 아츠기기지(가나가와현 야마토시, 아야세시)에서의 공모함재기로 인한 야간 발착훈련(NLP), 미 해병대 이와쿠니기지로의 이전.
- (4) 재오키나와 해병대 일부분을 일본 본토로 이전. 재오키나와 해병대의 포병, 보명 약 2,600명 본토 이전안.

#### ※ 재편안 현 상황 : 후텐마기지 분산 이설안을 중심으로 (1~3까지는 일본측 제안)

- (1) 후텐마 헬기부대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설...현내 이설. 오키나와 차별을 실증.
- (2) 공중급유기를 SACO합의에 따라 이와쿠니기지로 이설.
- (3) 가데나기지 미 해군 P3C 초계기를 해상자위대 가노우야(鹿屋-가고시마현)로 이설. 가데나기지 폭음소송 대처책으로 이착륙 횟수를 줄이는 조치.
- (4)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 사령부(우루마시) 팜 이전 등 2천 수백 명 사령부 관계요원을 삭감(미국 제안). 단 보명 등 실전부대 이전을 수반하지 않다.

### 4. 헤노코 신기지건설반대투쟁 현 상황

1997년 후텐마 기지의 대체지로 나고시 헤노코 바다가 검토되면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다.

기지건설 반대입장에 있던 오키나와현 오타 지사와 소극적 반대인 나고시 히가장이 선

거에서 패배한 후 새로 당선된 지사와 시장은 기지 건설 찬성입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노코 해상기지 건설사업은 진행되지 못했으며, 구체적으로 시도된 보령조사작업 또한 주민들의 해상시위 등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일본정부나 오키나와현 등은 헤노코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타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 지자체들은 모두 자신의 지역내에 미군기지가 신설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계획의 철회가 아닌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헤노코 해상기지 건설반대 투쟁은 2004년 4월 19일 천막농성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이고 물리적으로 진행되었다. 나하 방위시설국에서 보령조사 작업현장 사무소 건설을 위해 헤노코에 들어오려 하자 반대 주민들이 실력저지하고 보령조사를 막기 위한 천막 노상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농성이 진행되고 있던 중 8월 13일 후텐마 기지 소속 헬기가 오키나와 국제대학에 추락하여 건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방학이라 사람이 다치지 않았지만 엄청난 사고였기 때문에 다시 미군 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관심과 투쟁이 증폭되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오키나와 경찰의 접근을 막아 미군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9월 12일 현민 3만명이 모여 후텐마 기지의 즉각 반환, 민간 지상에서의 비행금지, 일미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하였으며 이 집회에서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 밝혀지기도 했다.

9월 9일 헤노코에 보령조사를 위한 배가 새벽에 출항하자 헬기기지반대협의회는 카누를 타고 바다로 나가 보령조사를 막기 위한 해상시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11월 16일의 경우 헤노코 산호초 외 보령조사를 위해 대형 크레인선이 스페드선을 적재하며 나카구스구항(中城港)을 출항하자 헬기기지반대협의회에서 항의선을 출항시켜 저지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나하 방위시설국이 보령조사를 위해 세운 망루를 주민들이 점거하기도 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지속되었고 인근 어부들이 배를 물고 나와 항의시위에 동참하기도 하였다. 그린피스의 경우 '무지개 전사호'가 헤노코에 도착하여 기지건설 반대투쟁에 함께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이나미네 현 지사는 오키나와를 방문한 미 연방의회 해외기지 재검토 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해병대 기지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일본 정부에서도 다른 대안이 있다면 헤노코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현

과 정부의 태도는 주민들의 긴장을 낮추고 몰래 조사를 진행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있다. 오키나와 현이 올 봄에 나하 방위시설국이 신청한 헤노코 보링지질조사 기간을 1년간 경신하는 등의 이중적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4월 27일부터 망투와 농성장 등에서 24시간 감시체제로 들어가 투쟁을 하고 있다. 5월 9일 영국 BBC(영국방송협회)가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환경문제로 헤노코 현지를 취재하면서 '세계에서도 드문 투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5월 15일 후텐마기지 인간띠잇기 행사에 현민 2만 4천 명이 참가하는 등 미군기지 반대운동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헤노코 헬기기지건설반대협회의회는 이번 투쟁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① 멸종위기에 처해져 있는 국가의 천연기념물 유공이나 산호 등 풍부한 해양생물이 생식하는 헤노코 산호초를 파괴하게 놔두지 않겠다 : 환경보호 입장

② 재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한국전쟁, 월남전쟁, Gulf War, 아프간전쟁, 이라크전쟁 등으로의 출격·병참기지가 되어 있다. 아시아 민중에게 원한을 주는, 침략전쟁의 가담자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죄 인식 : 평화창조 입장

③ 1조 엔 이상인 배려예산으로 건설, 미군에게 무상제공하는 부당성 : 팽대한 적자재정, 국민 증세, 사회보험료 증액 등 과중부담. 도리 없는 불공평.

④ 전후 60년 동안 변함이 없는 재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존재와 중압, 일본 복귀 후 처음 신기지건설을 절대로 저지한다.

⑤ 실질적인 공사 착수인 63곳의 보링조사는 환경 아세스먼트 법 위반. 심장에 칼을 찌른다 : 보링조사는 산호초 파괴.

또한 헬기기지건설반대 협의회는 투쟁원칙으로 ① 지역 헤노코 '생명을 지키는 모임'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원하고 ② 비폭력 주민운동을 전개하며 ③ 농성 현장에서는 지원 정당, 노동조합 등의 깃발을 걸지 않는 등의 원칙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참고자료 1]

### 미국에서의 유공 소송 중간 판결

#### 1) 소송 개요와 쟁점

히가시온나 다쿠마(東恩納琢磨) 등 원고(유공 바다 거북이도 포함)는 미국 환경보호단체 '생물다양성 센터'의 도움을 받아 2003년 9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미국국방총성장관으로서 소송의 내용은 신기지 건설로 오키나와 희귀생물인 유공에 미치는 영향을 회피, 저감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소송은 미국의 역사적 문화재보존법(NHPA)에 의한 소송이다. NHPA는 미 정부가 해외에서의 행위에 당해국에서 NHPA과 동등한 가치 내용을 가지는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수속을 할 것이 의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측인 미국 당국은 오키나와 유공이 NHPA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 각하를 요구하였다.

① NHPA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건조물이나 장소가 보호 대상이지 생물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일본 문화재보호법은 사적(史蹟)과 생물을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미국 법과 동질성을 갖지 않는다.

② 신기지건설은 일본정부의 단독행위로서 일미지위협정에 따라 완성한 시설 제공을 받기 때문에 기지건설에 관해서는 미국 정부의 행위는 없다.

③ 군사·외교문제는 일본정부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사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 2) 연방지방법원 중간 판결

연방지방법원은 피고 국방총성과 럽스펠드 장관으로부터 제기된 소송 각하 신청을 다

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① 유공은 오키나와 현민에게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NHPA과 동 취지인 일본보호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② 1997년과 2001년의 두 번 헤노코 해상기지 운용조건이나 개념을 문서 책정 등으로 미 정부의 관여하였고 지시가 있었다. (후텐마 대체시설 운용 소요와 개념)

③ NEPA(국가환경정책법)의 역외적용을 부정한 요코스카 NEPA 소송을 본 소송에 적용할 수 없다.

### 3) 판결의 의의

일미 양정부의 안전보장정책보다 국경을 넘는 지구적 규모의 문화재보호가 우선이라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 [참고자료 2]

#### 후텐마기지 반환과 헤노코 신기지건설 결정 연혁

#### 보링조사저지행동 1년 동안의 흐름

##### 1995년

09/04 오키나와 본도 북부에서 미군인으로 인한 여학생 강간사건 발생.

10/21 강간사건에 대한 현민 총궐기대회가 개최. 8만 5천명 현민이 결집.

11/19 오키나와에서의 시설 구역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SACO)설치.

##### 1996년

04/12 하시모토수상·몬델 주일대사 회담. 후텐마비행장을 5년 내지 7년 이내에 반환 합의

04/15 SACO 중간보고 발표. 후텐마기지 및 세나하(瀬名)통신시설 전면반환 등

09/08 일미지위협정 재검토 및 미군기지 정리축소를 요구하는 현민 투표. 도도부현에서 처음으로 실시, 투표율 59.53%, 찬성률 89.09%

07/17 하시모토 수상, '현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철거 가능한 해상 헬리포트 건설안도 검토 중"이라 발언. 워싱턴에서 일미안보사무 레벨 협의 개최.

① 가테나기지통합안, ② 캠프 슈와부 육상 안, ③ 부체(浮體)공법으로 인한 해상 헬리포트안 3개 안이 제시되었다.

11/16 규우마(久間)방위청 장관, '캠프 슈와부 바다가 유력'이라 발언.

12/02 SACO 최종보고. 해상시설 건설을 추구하고 오키나와 본도동해안 바다에 건설 결정.

12/04 하시모토 수상과 기지 소재 시정촌장 등과의 간담회. '해상헬리포트 건설은 지역의 의견을 듣지 않고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언.

##### 1997년

01/21 시마구치(嶋口) 나하방위시설국, 히가 데즈야(比嘉鐵也) 나고시장을 방문. 캠프

슈와브 수역 조사 승낙을 요청.

- 01/27 헬리포트 건설저지협의회 '생명을 지키는 모임' (해노코) 결성.
- 01/30 헬리포트건설저지북부지역 총궐기대회가 개최.
- 02/10 구매시마(久米島) 바다 도리시마(鳥島) 사폭격장에서 1995년 12월부터 1996년 1월 사이에 해병대 하리아기가 열화 우란탄 1,520발을 사용한 것이 판명.
- 03/10 히가 시장, 시의회에서 '해상시설건설은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표명.
- 03/25 하시모토(橋本) 수상 - 오타 현지사와의 회담에서 나고시에 국립고전(高専) 설치 제안되었다.
- 04/10 히가 시장, 해노코구 행정위원회에 해상기지건설 사전조사 승낙을 제안.
- 05/09 나하방위시설국, 캠프 슈와부 바다 사전조사 시작.
- 06/06 '해리포트 기지건설 찬반을 묻는 나고시민투표 추진협의회' 결성.
- 06/13 나하방위시설국, 현에 보령조사를 위한 해역사용신청.
- 06/27 나고시민투표 추진협, 나고시에 '나고시민투표조례제정' 청구.
- 08/04 나하방위시설국, 캠프 슈와부 바다 보령조사에 착수.
- 08/13 나고시의회, 시민투표조례 가결.
- 10/17 추진협의 발전적 해산. '해상헬리기지반대, 평화와 나고시정 민주화를 요구하는 협의회'(헬리기지반대협) 결성.
- 12/21 나고시민투표, 헬리기지건설반대표가 52.85%가 되어 승리.
- 12/24 히가 시장, 하시모토 수상과의 회담에서 해상헬리기지 승낙과 시장 사임을 표명.

1998년

- 02/06 오타지사, 해상헬리포트건설 승낙 거부 표명.
- 06/28 나고시장 선거, 찬성파가 추천한 기시모토 전 조역이 당선.
- 05/17 후텐마기지 무조건반환을 요구하는 대포위행동, 1만 6천명이 참가.
- 11/15 현지사 선거에서 보수계 이나미네 후보가 당선.

1999년

- 04/29 일본정부 오키나와 정상회의 개최를 나고시로 결정.

- 09/24 나고시 해노코구, 기지 이설에 반대 결의.
- 10/15 현의회, 후텐마기지 조기 현내이설요청을 결의.
- 11/22 이나미네 지사, 후텐마기지 이설장소로 해노코구 연안 지역을 표명.
- 12/23 나고시의회, 후텐마비행장의 해노코구 연안지역으로의 이설정비촉진결의를 가결.
- 12/27 기시모토시장, 후텐마기지의 나고시 승낙을 표명. 헬리기지건설반대협의회, 시장 리콜 선언.

2000년

- 04/24 헬리기지반대협 임시총회. 시장 리콜을 단념.
- 07/21 오키나와 정상회의 나고시에서 개최.
- 08/25 일본정부, 오키나와현과 나고시 등으로 구성되는 '후텐마기지대체시설협의회'발족.

2001년

- 06/08 제7회 대체시설협의회, 3개 공법 8개 안이 제안.
- 12/27 제8회 대체시설협의회, 기시모토시장은 해상기지 장소를 산호초 외 안으로 합의.

2002년

- 02/03 나고시장선거, 기시모토시 재당선.
- 07/29 제9회 대체시설협의회, 위치, 공법이 결정.
- 11/18 현 지사선거, 이나미네씨가 재당선.

2003년

- 01/28 '대체시설건설협의회'발족.
- 11/17 나하방위시설국, 오키나와현에 공공용재산사용협의서를 신청.
- 12/10 제2회 대체시설건설협의회, 사업주체를 나하 방위시설국으로 결정. 매립 면적 187ha, 호안부분 약 20ha. 작업 야드로서 오오우라만 서측 만 평 매립안도 제시.

2004년

- 01/25 일본자연보호협회, 헤노코 바다 리프 내 관찰로 유공이 먹은 흔적을 발견.
- 02/26 이하 기노완시장, 3월 정례회의에서 '후텐마비행장 반환 액션 프로그램으로 5년 이내 반환실현에 힘을 쓰겠다'고 결의.
- 03/09 오오우라만에서 유공 한 마리가 헤엄치는 것을 확인.
- 04/07 오키나와현 공공용재산사용협의서에 동의.
- 04/19 나하 방위시설국, 보링조사 작업현장사무소 건설을 위해 새벽에 트럭 수대를 끌고 헤노코 어장으로 도착. 헬리기반대협 등이 실력 저지. 이 날 이후 헬리기반대협 회의 어장 앞 농성 시작.
- 04/2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는 방법서 공고 종람 시작. 결합상품 설계도.
- ① 비행 루트 불명확, ② 사용항공기 기종 불명확, ③ 작업 야드 규모 등 불명확, ④ 항공기 세정시설이나 연료 저장고 등 건설시설 개요 연기, ⑤ 민간공항 사용기종 명기하지 않고 수요예측도 과거 자료를 차용.
- 05/10 기지 현내이설에 반대하는 현민회의, 나하 방위시설국에 나고시 헤노코 해역 보링조사에 관한 공개질의서 제출.
- 05/30 류큐신보사, 현의원선거 유권자 300명 전화설문조사에서 60%가 현내이설 반대. 헤노코 이설지지가 7%로 나타났다.
- 06/02 방법서 공고종람 마감.
- 06/28 국제산호학회 오키나와 개최. 미국 생물다양성센터 활동가 참여. 헤노코 산호초와 유공을 지키기 위해 로비활동 전개.
- 07/11 참의원 선거에서 기지 반대를 주장한 이토가즈 게이코씨가 95,00표 차이로 보수계 후보를 압승.
- 현민은 헤노코이설 NO, 나라의 이라크 공격이나 자위대파견을 지지하는 자공노선에 반대 의사표시를 하였다.
- 07/12 이하시장, 미국으로 후텐마비행장 조기반환을 호소하러 출발.
- 08/02 국회 앞에서 도쿄 시민단체가 헤노코 농성투쟁에 응하며 보링조사 중지와 헤노코이설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 시작.

08/13 오키나와국제대학 내에 후텐마기지 헬기가 추락.

09/03 나하 방위시설국, 나고시 구시(久志)10구 주민들에게 보링조사 설명회. 시설국은 호안 아래 지반을 조사하기 위한 보링조사라고 설명. 대부분의 주민들은 알리바이 만들기 설명회라고 규탄.

09/09 본도 남부 사시키정(佐敷町) 바텐항(馬天港)에서 보링조사선이 새벽에 출항. 헬기기지반대협의회 카누로 보링조사 해상 저지행동 시작.

09/12 기노완시 오키나와국제대학 내에서 미군헬기추락항의시민대회에 시민 3만 여명이 결집.

① 후텐마기지 조기반환, ② 민간지상 하늘에서의 비행중지, ③ SACO 재검토, 헤노코 이설 재검토, ④ 일미지위협정 재검토.

09/14 오키나와 타임즈·아사히신문사 합동여론조사 실시, 헤노코 이설 반대 81%

09/18 기시모토 다케오(岸本建男) 나고시장, 시 의회에서 '헤노코이설 마지막까지 고집하지 않겠다'고 발언.

09/28 이나미네(稲嶺) 지사, '미군재편, 다른 안이 나오면 헤노코를 고집하지 않다'고 현 의회 발언.

10/02 고이즈미 수상, 공동통신가맹사 편집국장회의에서 강연. '재오키나와미군기지 본토이전을 추진, 각 지자체과의 사전조정을 선행, 다른 지자체들도 책임 있는 대응을'

10/16 마치무라 의무대신, 헬기추락현장인 오키나와국제대학을 시찰 '조종을 잘 해서 피해가 최소한이다'고 비상식적인 발언.

11/16 헤노코 산호초 외 보링조사를 위해 대형 크레인선이 스페드선을 적재하며 나칸구스구항(中城港)을 출항. 헬기기지반대협 항의선이 저지행동.

11/17 나하 방위시설국, 산호초내에서 단판 망루 설치작업 시작.

11/19 오키나와현 환경영향평가심사회, 나하 방위시설국 방법서에서는 '적확한 의견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사업자의 자세를 묻는 엄격한 내용의 답신을 냈다.

11/20 스페드대선을 헤노코 산호초 외 바다에 정박시켰다.

11/21 유공넷 오키나와(환경보호단체) 활동가가 스페드대선 주변해역을 잠수 조사하여 산호나 암초 파괴상황을 비디오 촬영.

11/25 국제자연보호연합, 총회에서 미군 후텐마비행장 이설을 둘러싸서 유공 등 회귀

야생생물 보호와 환경영향평가 재검토(전략적 아세스먼트)를 일미 정부에게 요구하는 권고를 채택.

11/27 나하 방위시설국, 30여 곳의 산호나 암초 파괴를 인정.

11/29 오키나와현, 방법서 내용불충분이라 인정하면서 지사의견서를 나하 방위시설국에 제출. 준비서 단계에서 조사항목, 수법 재검토와 구체화를 요구.

① 작업 야드 구역 명확화, ② 항공기 기종이나 수, ③ 호안도 포함한 상세한 매립지형상, 유공 생태적 특징에 관한 조사 및 개체군 유지로의 영향, 예측, 평가 등.

나하 방위시설국 앞에서 보링조사 중지, 헤노코이설 철회를 요구하며 여성이 단식투쟁 시작.

12/01 스페드대선, 태풍27호 여파를 이유로 모항으로 철수. 5곳에 설치한 단관망루 중 한 곳도 철거.

12/07 보링조사 작업원이 단관망루에서 저지행동 참여 여성을 떨어뜨렸다.

12/09 지원 남성이 폭력작업원으로 인하여 단관 망루에서 떨어졌다.

12/10 평화시민연락회 등 약 40 시민운동단체가 헤노코이설 반대 농성을 현청 앞에서 시작.

12/13 헤노코 주변 어부(우민쥬)가 지원·연대로 나선다. 구니가미(國頭), 기노자(宜野座), 긴(金武), 이시카와(石川)어협에 소속하는 어부들이 어선 13척으로 달려왔다.

12/21 헬기기지반대협이 어선 등 20척 여로 해상시위 진행.

12/27 헬기기지반대협 등 어부를 포함 68명, 보링조사 중지를 요구하여 나하 지방법원에 제소.

12/28 이시카와, 긴, 기노자 3어협조합장, 나하방위시설국과 교섭. 보링조사로 인한 어획량 감소를 우려. 독자적인 저지행동도 할 생각이 있다고 항의.

## 2005년

01/06 나하 방위시설국, 단관망루에서 작업 시작. 헬기기지반대협 농성으로 저지.

01/13 스페드대 굴삭작업을 위해 헤노코로 다시 온다. 헬기기지반대협 항의선 등이 대선을 둘러싸서 저지행동, 오후 5시에 나카구수쿠만에 철수.

02/07 이시카와, 긴, 기노자 어협 소속 어선 21척이 해상시위.

이나미네 지사 현청에서 '헤노코 이설 재검토 일회일우할 수는 없다. 오키나와 부담경감이 되도록 강하게 요청해간다'. 기시모토 시장 '청천 벽력, 이설 철회가 되면 환영. 재검토할 거면 현외로. 원래 나는 유치파가 아니다. 어려운 결단으로 받아들였다'

02/09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 피스 재팬이 해양생물 생태계를 파괴하는 헤노코 이설에 항의하여 운동에 참여 포명.

02/15 이나미네 지사, 오키나와를 방문중인 미 연방의회 해외기지 재검토 위원회원과 회담. 해병대 현외 이전을 요청.

02/19 오오우라만에서 유공과 바다 거북이가 사이 좋게 유명하고 있는 모습 목격.

2+2(일미안전보장협회의위원회) 라이스 국무장관 '미군 존재가 아시아 태평양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고 있다'

02/21 이설추진과, 나고시에서 결의대회 개최. 기시모토 나고시장 불참.

03/01 헤노코 보링조사 중지 소송 제1회 구두변론이 열렸다.

03/03 샌프란시스코 미 연방지방법원, 유공소송, 피고 국방총성과 림스펠드 국방장관으로부터의 소송 각하를 물리치고 미국문화재보호법 적용을 인정.

03/07 그린피스 '무지개 전사호' 헤노코에 도착.

03/10 이나미네 지사, 방미출발식 'SACO 중에서는 선택지에 한계가 있고 어려운 선택. 미군재편 새로운 움직임...best는 뭐냐며 물으면 당연 현외이설이라고 명언'

기시모토 나고시장, 3월 정례시의외에서 '헤노코 이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할 수만 있으면 현외, 국외가 best이다. 무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다. 역사가 평가.'

03/15 河相 북미국장, 참원외교방위위원회에서 '헤노코 재검토 배제하지 않다'고 답변.

03/16 나하 방위시설국 새벽에 헤노코에 스페드대선을 정박. 헬기기지반대협 항의선으로 인하여 오후에 나카구수쿠만으로 철수.

03/18 방미중인 이나미네 지사에게 태평양군 부사령관이 '헤노코 재검토' 시사.

03/28 참원재정금융위원회에서 고이즈미 수상 '외무, 방위 양성청에 후텐마비행장 현외 이설도 시야에 놓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지했다'고 답변.

04/01 오키나와현, 나하방위시설국이 신청하고 있는 '헤노코 보링지질조사 1년 동안의 기간경신'을 인정.

04/02 헬기부대 이에시마 보조비행장 등으로의 기능분산안이 부상.

04/17 헬기기지반대협 농성 1주년 집회 개최.

04/20 나하 방위시설국, 4개월 만에 산호초내에서의 단관망루 설치작업을 시작하지만 헬기기지반대협과 어부들의 항의선이 저지.

04/26 나하 방위시설국 새벽 3시에 30척 어선을 빌려서 4곳의 단관망루에 철조망을 지 ' 든 야간작업을 시작. 오키나와현에 제출한 '환경배려사항'에 위반하는 야간작업.

제2회 보링조사 중지 소송. 어부 12명을 포함 17명이 추가제소.

04/27 헬기기지반대협, 24시간 농성체제로.

04/30 일미 양 정부, 재오키나와 해병대 일본 본토 이전을 보류할 방침을 냄.

05/09 영국 BBC(영국방송협회)가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환경문제로 헤노코 현지를 취 재. '세계에서도 드물 한 투쟁'이라고 평가.

미 연방 의회 해외기지 재검토 위원회 중간보고를 발표. '대부분의 해병대 부대를 남겨 야 한다. 북동아시아 지역의 특별한 위협에 대처. 오키나와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보'

05/15 후텐마기지포위행동에 현민 2만 4천 명이 결집.

05/16 고이즈미 수상, 충원예산위원회에서 '보링조사 중지검토'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 의 강한 저지 결의' '헤노코이설 재검토도 포함해서 검토'라고 답변.

05/18 야마나카 방위시설청 장관, 충원외무위원회에서 '야간작업 재검토를 검토'라고 답변.

05/20 야마나카 방위시설청 장관 정례기자회견에서 '(반대와 저지행동에 대한)특효약 은 없다'발언.

05/24 이하 기노완시장 나고시 헤노코를 시찰.

05/27 방위시설청 고관, 망루 점거를 이유로 '야간작업 어렵다'고 정례기자회견에서 발언.

05/30 오키나와현 의회 야당현 의단, 정부요청활동. '헤노코 견지'에 마치무라 외성 곤 혹. 현내이설에 반대하는 현민회의, 국회요청행동.

06/01 나하 방위시설국, 3곳의 단관망루 '철조망을 철거.

06/09 캠프 슈와부 소속 수륙양용전차 헤노코 어항 주변 산호초에 침몰사고. 오일 펜스 설치 등 환경대책하지 않음.

07/03 본도 중부에서 가데나기지 소속 미군인이 초등학생 여아에게 성추행.

07/05 초등생 소녀 성추행 사건에 항의하러 온 후쿠시마 사민당 당수에게 '사건은 군대 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이며 일반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미 대사관 간부가 분제발 언.

07/06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문제 의원 간담회 멤버가 헤노코를 시찰. 하토야마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헤노코는 불가능, 현내 이설은 반대'라는 견해. 발표.

07/07 오키나와 등 미군기지문제의원 간담회 멤버 로버트 블랙맨 4군 조정관과 면담. '후텐마는 사탕수수나 패인애플 밭이며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공항을 만 들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역사사실을 무시.

07/09 정부관계자가 발언. 가테나 통합안은 10년 정도의 잠정사용. 대체시설예정지는 캠프 슈와부나 가데나탄약고내. 일미지위협정 제3조 기지 내 '설정, 운영, 관리'는 미군의 자유재량. 기존시설내라면 주변 지자체 동의는 필요조건이 아니다. 새로운 기본계획 및 환경 아세스가 10년 걸리기 때문에.

07/10 이하 기노완시장 등 요청단, 미국 내 기지정리통합 대상인 된 도시로 후텐마기지 승낙을 요구하며 도미. 여비 등 행동비용은 시민 모금으로.

07/12 방일 중인 라이스 국무장관과 마치무라 외상과의 회담에서 '미군재편중간보고' 를 9월에 발표하기로 합의.

이나미네 지사 규슈대학에서의 강연에서 '해병대 현외 이전을 요망. 국외가 아닌 본토 이전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

07/13 마치무라 외상, 20년 전 미군인에 의한 강간사건 피해여성의 편지에 대해 '군대 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와 안전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 과중한 기지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점과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가 없는 발언.

07/19 미 해병대 침몰한 수륙양용전차를 그레이 선으로 회수.

07/21 긴급항의현민집회 대표단에 대하여 '안전면에 배려되고 있다'고 스기우라 관방 부장관 등이 답변.

07/22 마음에 다라 여성들의 목소리 네트워크 150 여 명이 후텐마기지의 헤노코로의 이전 단념을 요구하며 오키나와현 국제거리 행진.

07/30 야마나카 방위시설청 장관, 후텐마 이설을 둘러싼 노선대립으로 경질.

# 한반도의 자주·평화를 향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유영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 1. 미국의 군사패권전략 변화

탈냉전 이후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잠재적국으로 상정하는 아이사 중시전략과 동북아시아의 전쟁억제, 전쟁발생시 신속한 승리를 추구하는 등의 군사전략<sup>4)</sup>으로 예년보다 동북아시아를 향한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통해 미군을 첨단과학 무기로 무장된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여 21세기형 네트워크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려

4) 90년대 탈냉전시기 전략으로 채택되었던 '양대전쟁전략'을 대규모 전쟁 2곳에서의 "신속한 승리"와 이 중 한 곳에서의 "결정적 승리"로 보다 공세화한 것에 덧붙여 △ 4개 지역(유럽,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도서, 중동/서남아시아)에서의 전쟁억제, △ 미국본토방위를 추가한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전쟁억제를 위해 미군을 전진배치하기로 한 4개 지역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신속한 승리"를 추구하는 주요전쟁 지역 두 곳 중 하나이다. (서재정, "탈냉전기 미국의 신군사전략",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한울, 2005, 48쪽.)

고 한다.<sup>5)</sup>

새로운 군사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사변환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군은 전세계에 걸친 군사력 재배치 작업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 GPR)'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럽과 동북아시아에 집중된 미군을 신전략에 부합하도록 분산배치하고, 신속기동성을 극대화하는 군사변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의 미군재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6)</sup>

## 2.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 노린 주한미군 재편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이하 '아·태기동군화')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50년간 유지돼 왔던 대북 방어 목적의 주한미군의 성격을 아·태 지역을 포괄하는 신속기동군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즉, 신속기동능력과 정밀타격력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을 언제든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디로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로 통해 대북 군사능력이 강화되고 대중국 봉쇄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의 변화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부드러운 이름으로 포장되고, 한미간 협상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 향후 주한미군의 재편이 가져올 위협성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다.

<표 1>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현 재	미 래
활동 범위	대한민국	아시아·태평양
성격	방어적	'개입적'(침략적)
특성	지상군 위주의 불박이 군대	해·공군 위주의 기동형 군대

이러한 주한미군의 변화는 주한미군 군 구조의 변환, 기지의 재배치와 병력 감축, 군사

5) 서재정, 위의 책, 48쪽.

6) 서재정, 위의 책, 49쪽.



력 증강 등을 통해 나타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무마할 한미간 법제도의 정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1) 군 구조 변환

미국은 지난 6월 중순, 미2사단을 사단과 군단기능을 통합한 '미래형사단'(UEX:Unit of Employment X)으로 전환했다.<sup>7)</sup> 이로써 미2사단은 C4I 및 무인정찰기(UAV)를 비롯하여 최신에 에이브럼스(AIM) 탱크, M270A1 최신에 다연장로켓시스템을 갖춰 현재 보다 훨씬 강화된 '정밀타격능력'과 '확대된 전장과 원거리에서의 작전능력'을 보유한 미래형사단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했다.<sup>8)</sup> 이는 미2사단 산하의 제1여단이 기존 여단보다 2~3배 전력이 강화된 중무장한 '미래형전투여단'(UA:Unit of Action)으로의 재편을 완료한 데 뒤이은 것이다.<sup>9)</sup> 미국은 이밖에 2사단 등 주한 미 지상군을 지휘하는 8군사령부도 올해 말까지 UEX보다 상위 개념인 '작전지원사령부(UEY)'로 개편할 방침이다.<sup>10)</sup>

미국은 또한 내년 1월 평택 K-55 공군기지에 있는 미7공군사령부를 개편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일의 해외공군전투사령부인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다.<sup>11)</sup>

이와 같은 미군 구조의 변환은 첨단무기와 새로운 작전개념 즉, 정밀타격능력과 원거리 작전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군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2)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임무의 전환, 병력 감축

한국과 미국은 작년 합의를 통해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하였고 10가지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국군으로 이양하며 단계적으로 2008년까지 1만2천5백

7) "주한미2사단 '미래형사단' 개편 완료", 《연합뉴스》, 2005. 6. 17.

8) "미2사단, 여름까지 '미래형사단' 탈바꿈", 《연합뉴스》, 2005. 3. 6.

9) "주한미2사단 '미래형사단' 으로 업그레이드", 《연합뉴스》, 2004. 8. 20.

10) "핵심 1여단 '미래형 작전부대'로 개편", 《경향신문》, 2004. 10. 6.

11)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 내년 1월 평택에서 창립", 《경향신문》, 2005. 7. 20.

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용산과 미2사단의 재배치로 평택지역에는 349만평의 신규 기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미 평택에는 457만평의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고 주둔 기지 주변으로 더 큰 규모의 기지를 만들기 위해 확장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공군기지와 해군항이 있는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핵심요건으로 하는 주한미군 아태기동군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에 있다.

주한미군은 대북방어를 위해 수행했던 임무 중 일부를 한국군에게 넘겨 자신들의 기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한다. 한국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 대화력전, 사격장 관리 등이 포함된 대북방어 관련 10대 임무를 이양받는 데에는 약 1천187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sup>12)</sup>

### 3) 한미연합전력증강

미국은 2006년까지 150개 분야에 1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주한미군 전력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액수는 북한의 한 해 군사비의 7~8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여기에는 아파치 롱보우 헬기 교체, MD무기체계의 하나인 패트리엇미사일(PAC-3), MI 계열 전차 성능개량, 전술지휘통제(C4I)체제 성능 개선, 무인정찰기 실전운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스트라이커 1개 여단을 싣고 오키나와에서 하루 만에 한반도로 이동할 수 있는 육군 초고속 수송함(TSV)과 공중 급유나 중간기착 없이 미 본토에서 11시간 만에 한반도로 병력을 투사하는 스트라이커 여단의 핵심 수송수단인 C-17글로브마스터 대형 수송기에 대하여 24시간 긴급 발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sup>13)</sup>

미국은 이와 함께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에 편승하여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PAC-3, 공중급유기, 무인정찰기 등 주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부응하는 무기체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12) "한국군 10대임무 인수 투자비 1천187억", 《연합뉴스》, 2004. 10. 4.

13) "주한미군 전력증강 '절반 이상' 진행", 《연합뉴스》, 2005. 4. 27.

#### 4) 주한미군 역할확대 법제도화

한미당국은 외교부 차관급 고위전략 대화,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 '전략적 유연성'회의 등을 통하여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법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각론 부분에서는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합법화·정당화하려는 것이다.

한미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재해석하여 한미동맹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한미안보공동선언을 제정하여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안정 기여' 등의 모호한 표현이나 재난구호,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의 명분으로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편법적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해외출동 사전협의제(또는 사전동의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지휘체계와 작전통제권의 변화도 논의하고 있다.<sup>14)</sup>

여기에 한국 정부와 여당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해외 긴급 재난 구조를 명분으로 국회 동의없이 국군의 해외파병을 가능케 하는 해외파병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사자의 파병 동의, 중립성, 무력불사용의 원칙 등 유엔 PKO의 5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 동의를 생략해야 하는 근거나 PKO상비부대를 편성해야 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설득력도 없는 이 법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이유는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5)</sup>

### 3.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문제점

14) 고영대,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pds\\_2&action=viewForm&uid=60&page=1](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pds_2&action=viewForm&uid=60&page=1), 2005. 4. 15. 참조.

15) 고영대, "정부의 이른바 PKO활동 확대와 국회 동의절차 생략 기도의 문제점",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s\\_news&action=viewForm&uid=781&page=1&search=title&key=해외파병법&idx=1](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s_news&action=viewForm&uid=781&page=1&search=title&key=해외파병법&idx=1), 2005. 5. 6. 참조

#### 1)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 위협과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미국이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북한을 쉽게 공격하고, 평택 K-55 공군기지와 평택항을 이용한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여 중국을 봉쇄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로 병력을 신속하게 파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시적인 주한미군 전쟁 수행을 위한 전초기지 또는 병참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1차 회의(2003. 4. 8~9) 때 미국측 기획참모부장의 "미 2사단의 현위치는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않다"<sup>16)</sup>는 발언이나,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 개입, 중국-대만간 양안갈등 때 군사적 조정" 등을 명시한 FOTA 3차 회의 한국측 사전준비자료<sup>17)</sup>,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 군사력의 신속 기동태세를 갖추는 것을 단기과제로 추진하겠다"<sup>18)</sup>는 3월 8일, 윌리엄 펠런 신임 미태평양 사령관의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우리는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말려들어 전쟁의 참화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이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또 다른 이유는 안정적인 영구주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서울 한복판에 대규모 땅을 차지하고 있는 용산기지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평택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한국 주둔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초기부터 "주한미군의 장기적·안정적 주둔여건 조성"<sup>19)</sup>을 그 목표로 내세워왔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협정 전문도 "(용산기지의) 적시 이전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체제(enduring structure)에 기여"<sup>20)</sup>한다고

16) 노회찬, "2004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2004. 11. 11.

17) 노회찬, "2004 정기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자료", 2004. 11. 30.

18) "북 핵 1~2개 보유...", 《연합뉴스》, 2005. 3. 9.

19) "국제 안보환경에 맞는 국방운영방향 확정", 《국정브리핑》, 2004. 8. 12.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협정에 '시설수준의 향상'을 명시토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최신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 2) 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존권 유린과 인권침해

미군기지재배치로 인해 평택 서탄 지역(공군기지 인근) 64만평, 팽성 지역(육군기지 인근) 285만평의 기지가 새로 확장될 예정이다. 기지 예정지에는 535가구(세대), 1372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 곳은 이미 미 육군기지와 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다.

2003년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이전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진행되면서 언론을 통해 평택지역에 기지가 확장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주민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나 평택시청, 국회의원들을 만나고자 했으나 어느 누구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배척하였고 한미간 합의가 이루어져 관련 협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겠다는 등 일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미 육군기지가 있는 팽성 지역의 경우 미군기지 편입지역 농토는 대부분 절대농지로서 농민들이 바다를 메워 지게와 가래로 어깨와 팔목이 빠지도록 일군 땅이다. 농지를 만드는 데 정부가 해준 일은 등기 내주고 세금 받아낸 일 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부는 '국가안보'를 내세워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앞으로도 품질이 좋은 쌀이 생산될 농지를 미군기지로 내 주는 것은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자식을 내주는 것과 같아 주민들은 미군기지확장 반대 팽성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강경하게 싸우고 있다.

편입될 마을 중 대추리의 경우 원래 마을의 위치는 현재 미 육군기지에 있었다. 일본군이 패배한 자리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기지를 확장하려고 주민들을 내쫓아 현재 대추리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다시 미군기지로 마을을 잃고 고향을 잃게 되는 것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분노하며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날 미군기지로 인해 소음피해와 환경오염, 미군범죄 등에 대해서도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땅과 집을 모두 내놓으라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20) 《용산기지이전협정》, 2004. 10.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토지수용 주민들과 평택시에 대폭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이 현재 수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보상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기지가 확장되면 평택시내에 군사시설이 대폭 늘어나고 전쟁의 위험이 높아져 정부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경제와 도시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조성되고 교육·환경·문화·미군범죄 문제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군 재배치가 내부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타인지 미육군기지의 헬기와 비행기 이착륙 횟수가 부쩍 늘었으며, 비행경로도 마을에 근접하여 낮게 날아 밤낮으로 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밤 11시, 12시에도 헬기가 술하게 날아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군사시설의 집중은 민간인들의 삶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미군기지 확장사업이 불가피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시행하는 공무원, 경찰의 경우 기본적인 인권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마을을 조사하러 들어온 국방부 직원이 자신의 신분은 묻는 주민들에게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찰들은 정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조사를 나온 직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마을 시찰을 해왔었다. 주민들이 돌담쌓기 행사용으로 마을 학교운동장에 쌓아놓은 돌무더기들을 새벽에 경찰들이 몰래 들어와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가져가다가 하면 국방부는 주민보상설명회를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고 마을 학교운동장에서 기습적으로 처리하려다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럴 때마다 경찰들은 정복을 착용하지도 않고 주민들을 연행하거나 폭력, 폭언을 일삼아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인권침해를 일삼는 것은 '국가안보'사업으로 '미군'과 관련된 사안을 집행한다는 정부, 경찰 공무원들의 오만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들에게 주민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을에서 내쫓아야 할 대상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 3) 굴욕적인 이전 비용 부담

용산 등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는 미국의 필요와 요구, 즉 해외주둔 기지 재배치계획(GPR)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치 비용의 대부분은 우리가 부담한다.<sup>21)</sup>

용산기지 이전의 경우 부지구입비, 설계비, 기반시설비, 건축비는 물론이고 이사비용,